

### 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 수요 확대 전망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시민들이 주택 연금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hankyung.com

한국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가진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대출자가 세상을 떠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되살아난 주택연금 인기, 지속가능한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수는 1만4,600건으로, 2021년(1만805건) 대비 35% 증가했다. 누적가입건수로 따지면 7만1,791건에서 8만2,94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30년 안에 2.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노인빈곤율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령인구 추이 전망'을 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던 65세 이상은 2070년에는 46.4%까지 늘어난다.

70대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51만 3,000원이지만 70대 가구의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148만8,000원으로 약 102만원 차이가 발생(2021년)한다. 주택연금의 평균 월 수령액이 116만원(올해 2월 말인 것)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11년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은 6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180개국으로부터 표를 얻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1996~1997년, 2013~2014년 임기에 이어 세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한다.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가 실시된 뉴욕 유엔 본부. 사진=연합뉴스

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은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평화구축에 기여 ▲여성과 평화안보에 기여 ▲사이버안보에 기

여 ▲기후변화 극복에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동유럽 비상임이사국 후보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슬로베니아가 당선됐다.

### 서울시, 2년 뒤부터 수소 버스 운행

2년 뒤부터 서울 시내에 수소버스가 다니게 된다.

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SK E&S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환경부, 현대자동차, 티맵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시내 경유버스인 공항버스, 시내버스, 통근버스 등은 수소 버스로 전환되고, 수소 충전소도 구축된다. 2025년까지 700대, 2030년까지 1,300여대 수소버스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특히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경유버스가 2026년까지 전체의 70%인 300여대, 2030년까지는 전량이 수소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형 경유버스는 일반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수소버스는 충전시간이 전기버스보다 짧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약 600km 이상에 달해,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특히 적합하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공항버스 등 수소버스 전환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현대차는 수소버스 적기 생산 공급에 협력하고 티맵모빌리티는 공항버스 운수사업자로서 경유 공항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돕는다.

추형욱 SK E&S 사장은 "수소 대중교통의 도입은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액화수소를 공급해 '친환경 수소버스'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